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컴퓨터 이미지를 가공하고 있는 모습과 모션 캡처 장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지원한 애니메이션(오른쪽).



영상·게임·애니... 광주만의 '킬러 콘텐츠' 만든다

문화 산업

문화산업이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산업은 성장폭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문이다.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노동집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00조원, 수출액은 57억 달러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9%, 수출액은 8%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른 시기부터 문화산업에서 미래 먹줄거리를 찾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5대 문화산업 전략 콘텐츠를 선정, 인프라를 구축한 게 대표적

광주 ACE Fair·e-스포츠 대회 등 열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스마트 핑거' 무비·애니 창작 지원으로 문화산업 창업 활성화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해 도시 알리고 우수공예품 명품 육성

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지난 2002년 개원했고 광주 영상문화복합관, 광주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컴퓨터형성 이미지)센터 등을 잇따라 건립, 꾸준히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광주시는 올해 지역발전 전략산업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 작업을 본격화한다. 그 핵심축은 첨단영상 후반작업(Post Production)기지로 자리매김한 광주CGI센터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영상콘텐츠 업체를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노후한 송암산업단지 ▲기획과 창작 중심의 창조콘텐츠제작지원센터 ▲비즈니스 지원과 유통 및 마케팅 역할을 수행할 크리에이티브 콘텐츠플라자 ▲시민 체험 공간인 디지털체험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획-제작-유통의 전 단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조합 펀드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업체 육성·유지에 나선다. 올해 목표는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을 발굴, 광주로 유치하는 것이다.

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ACE Fair'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행사는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가 개최하는 행사다. 시가 꾸준히 공을 들인 결과 '광주 ACE Fair'는 국내 최대의 문화콘텐츠 전시회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문화를 지배할 힘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핑거 콘텐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최소한의 행위인 손가락을 까다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소비하는 콘텐츠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문화산업의 키워드로 꼽고 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 핑거 콘텐츠는 10분 내외의 짧은 영화나 드라마, 웹툰처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웹드라마와 웹소설, 웹툰 창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도 연평균 17.9% 성장하고 있어 웹툰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스마트 핑거(Smart finger) 시대에 맞는 광주 세계 최초 '만화·애니메이션' 등 창작활동 지원에 나선다. 광주 웹콘텐츠 페스티벌(WAF·Web Animation Festival)을 10년째 개최해오는 등 꾸준히 창작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스마트 핑거 콘텐츠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스마트 핑거 콘텐츠는 문화콘텐츠 창작개발 및 문화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가 게임산업을 주목한 이유는 내수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5년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16억6361만 달러, 콘텐츠 매출액은 25조3549억원이었다. 수출액 비중으로 보면 게임산업이 8억6768만4000달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이미 '한국 게임사관 학교'라는 브랜드로 게임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기반 게임산

업 육성은 부가 가치 높은 지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화형 게임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도시마케팅을 바탕으로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광주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영화·드라마 등에 노출시켜 도시홍보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의 명소(무등산·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가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영화·드라마를 선정해 제작 지원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국내 유명영화 제작사인 K필름, 싸이더스, 외유내강, 팬엔터테인먼트 등을 대상으로 드라마·영화의 촬영지로서 광주의 강점과 지원체계를 홍보할 계획이다. 정율성 선생을 소재로 한 한·중 합작영화 제작지원 사업도 펼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한·중 교류 활성화 및 촬영지 명소화로 도시브랜드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자조합 펀드(매인 펀드)와 시 보조금(포스트 펀드)도 제작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광주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다. 문화전당 개관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콘텐츠 분야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시는 그동안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모아왔다. 올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중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와 콘텐츠 관련기업의 성장을 견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최근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련 신규 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수도권 포함)의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 교육생과 수료생들에게 제공하는 인력 정보시스템도 마련한다. 교육생들에게 교육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예산업 기반조성도 올해 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수제공방육성, 우수공예품 발굴, 상품화가 목표다. 지역 공예상품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는 한편, 광산업, 디자인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LED)을 공예와 융합하여 광(光)융합형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광주현대병원 조감도

광주현대병원

인증 의료기관
2014.09 - 2018.09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항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과목

- 내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신경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응급의학과 · 재활의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91(용봉동) 북부경찰서와 용봉 IC 사이
대표전화 : 062)570-0114 응급실 : 062)570-0119
평 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00
(응급실 24시간 운영합니다)